

# 계파 갈등 고조 ... 일촉즉발 한나라

한나라당 내 양대 계파인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불편한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양 진영 사이는 더욱 벌어져 일촉즉발의 신경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당내 주류인 친이측이 참패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단합 카드로 '김무성 원내대표론'을 꺼내들었으나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뿌리 깊은 불신이 원인=지난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때 비롯된 양 계파간 갈등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양 진영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에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권 출범 이후 두 사람은 두 차례의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화해의 기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회동 이후 '당 대표 제안설', '회동 사실 언론 유출설' 등의 논란만 낳았다.

하지만 갈등의 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투쟁을 예고하는 갈등이라는 점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등의 공천권을 양 계파 간 근본적 화해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예민해진 박 전 대표=좀처럼 말을 아끼던 박 전 대표가 양 계파간 갈등과 관련, "친박이란 분들이 당이 하는 일에 발목잡은 게 뭐가 있느냐"며 공격성 발언을 했다.

방미 중인 박 전 대표는 10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에



방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親朴이 당 발목 잡았더니..." 강성 발언

### 당 단합 '김무성 카드' 친이-친박 갈등만 키워

대해 "원내대표 문제는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덧붙일 말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당의 화합책과 관련, "당의 갈등이 뭐가 있느냐. 무슨 화합을 해야하나. 친박 때문에 당이 안 되고 있다. 친박 때문에 선거에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원인에 대한 진단도 간단명료했다. 박 전 대표는 "내가 당 대표 때 실

천했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쇄신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무명한 공천시스템'을 언급한 것은 결국 잘못된 공천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로도 해석됐다.

박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박인사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떤 공천이든 당헌·당규에 따라 해야지 원칙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공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경고로도 들렸다. ◇화합 회동 가능성은=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결국 계파 갈등의 당사자인 양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양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계파 갈등이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을 한 뒤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 각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 회동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檢, 盧 사법처리 여부 다음주로

## 권양숙 여사 재소환 조사 늦어져

### 친신일 회장 주내 소환 어려울 듯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최대 분수령인 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소환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 결정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당초 9~10일 권양숙 여사를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짐작됐으나 100만 달러의 사 용처를 두고 협의가 늦어져 신병처리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친 회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 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 기초 조사가 필요해 주내 소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가 돼야 '박연차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줄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8부 능선을 넘어 대미(大尾)를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우선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친신일 세중나모여 행사 회장의 집과 사무실, 자금거래 인 자택 등 모두 18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히 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로 비 대가로 박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친 회장과 한상물 당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점으로 미뤄 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핵심 당사자인 친 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협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 부터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권 여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생겨 신병처리를 연기했다.

검찰은 8~9일 이메일로 1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전달받았다. 권 여사는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견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했고 10만~20만 달러는 아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직접 건넸으며 나머지는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중 권 여사를 소환해 '남은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 뜨겁다

## 서울시장 출마 후보 여야 정치인 거론

### 민주당 김제시위원장, 시장후보 선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이 넘게 남아있지만 벌써 일부 지역에 선 열기가 뜨겁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고 있고, 전북 김제에서는 벌써 후보를 선출하는 등 때 이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장=한나라당에서 10일 현재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3인의 원후보, 박 전 의원, 재선의 나경원 공성진 정두언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7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소장과의 리더로 꼽히는 원 의원은 다음 달 있을 서울시장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새 확장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도 이명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잠재적인 후보로 꼽히며 정두언 의원은 지난해 6월 '권력 사유화' 발언 이후 한동안 침묵하다가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을 재개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신계륜, 이계안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한길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동부이촌동 사무실에서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또 386세대의 말쑥적인 신계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신장지문화원을 개소,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DJ 영향력 살아 있나" 관심

## 박지원 원내대표 경선 결과 주목

민주당 박지원(사진) 의원이 10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박지원, 김부겸, 이종걸, 이강래 의원 등 4차 방정식의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의 출마로 DJ

의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합으로 민주당 재집권의 토대를 쌓는데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집권 토대를 쌓

는 방안으로 ▲민주당의 통합과 대단결 ▲강력한 대외투쟁 ▲중산층과 서민 정당화 ▲재집권을 위한 인물 발굴 ▲의정활동 적극 지원 등을 내세웠다. 박 의원의 출마에 따라 DJ의 현실 정치에 대한 영향력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DJ는 현실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DJ는 지난 4·29 재보선 선거에서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으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여기에 후보단일화 등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의 행보에 따라 DJ의 복심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부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

(재)광주테크노파크공공제 2009-20호

# 2009년도 "자동차 부품 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공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마케팅 지원사업계획 (① 신규마케팅 창출지원, ② 신제품 기획역량 강화지원, ③ 국내외 마케팅 활동지원) 등을 자동차 부품제조 및 관련기업 등에게 널리 알릴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목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7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사업계획

### 가. 신규마케팅 창출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업
시장 및 마케팅환경 종합 분석/조사지원	개별기업별 해외마케팅 개척을위해 시장동향 조사 지원	1기업당 최대 500천원	10개사 내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KCMS : Kotra Consulting & Marketing Solution)	고객별 타겟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에서부터 해외마케팅활동까지 통합솔루션서비스 지원	1기업당 최대 30,000천원	5개사 내외
기술성, 시장성 평가지원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평가 보증 연계 지원	1기업당 최대 6,000천원	5개사 내외

### 나. 신제품 기획역량 강화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기존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신규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지원	1기업당 최대 15,000천원	3개사 내외
BI 및 CIP 디자인 지원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는 CIP 및 자체 생산제품 BI 개발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4개사 내외
해외인증 및 특허지원	해외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획득 비용 및 특허·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6,000천원	5개사 내외
시제품 제작지원	수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	1기업당 최대 10,000천원	10개사 내외

## 다. 국내외 마케팅 활동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업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해외 마케팅 개발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어 발굴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10개사 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가하는 마케팅 활동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10개사 내외
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지원	시장 개척 및 전시박람회 참가 후 사후 수출상담 목적으로 기업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5개사 내외
Korea AutoParts Plaza 참가 지원	주요 글로벌 OEM기업과의 전시상담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5개사 내외
Global Transportech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확대를 위해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10개사 내외
광주국제 자동차모토 전시회 참가지원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전시회 참여지원	1기업당 최대 3,000천원	20개사 내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희망바이어 초청 지원	1기업당 최대 2,000천원	20개사 내외
국내의용 홍보물 디자인지원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디자인·제작	1기업당 최대 2,000천원	10개사 내외

\* 상기 내용은 사업계획이므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세부사업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09. 5. 13(수) 15 : 00

○ 장 소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4회의실

○ 참석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체 및 지원내용과 관련된 기업체 관계자 등

##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 김현중 팀장 (062-602-7057, khjsun@gjtp.or.kr)